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③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불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불교는 평상심을 강조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시달리는 대중이 가득차 있다. 고통스러워 하는 그들을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일, 또 편안한 사회를 위해 불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월 20일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세 번째 행사에서는 김형효 서강대 철학과 석좌교수가 '보살도와 불국토 실현의 방편' 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형효 교수는 벨기에 루벵대에서 서양 후기구조주의 철학을 전공한 서양철학자다. 공군사관학교, 서강대를 거쳐 한국학대학원에서 서양철학을 강의 중인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0여 년 전 우연히 청화 스님의 저작 〈가장 행복한 공부〉를 읽은 후 불교에 입문한 김 교수는 이후 불교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 〈원효의 대승철학〉등 불교관련 저작을 펴내는 등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한국 불교학을 접목한 수승한 학문세계를 펼치고 있다. 김형효 교수는 이날 사회를 편안케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종교 본연의 존재 이유라고 강의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잘 되려면 善해져라 "남 위하는 이가 부처다"

김형효 서강대 석좌교수, 불교가 나라 이롭게 하는 철학의 종착점… 보살심 강조

이번 시간에는 왜 보살도를 펴야 하는지, 한국에서 보살사상을 구체적으로 선양해 생활 불교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실천 사상으로 불교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혜거 스님은 먼저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보살도를 펼쳐나가는데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를 전공으로 하지 않고 일반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의 철학적 편력은 나라의 큰 도움이 되는 사상을 탐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탐구과정의 종착점, 그 나라를 이롭게 하는 철학의 종착점은 불교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불교를 생활화해야 하는가, 왜 불교를 많이 알려야 하는가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종교라는 점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한국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라 함은 초기불교에서 대중부가 전신입니다. 귀족적인 상좌부와 달리 대중부는 대단히 서민적이고 자유스럽고 유연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대중부의 보다 대중적이고 쉽고 편리한 사상에서부터 발전해 나오게 됐습니다.

대중적 사상은 대중적 종교로의 변환을 꾀하며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의 사대보살사상은 대중적 신앙의 효시가 됩니다.

철학과 종교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종교는 그 성립조건에 쉽고 간이하고 편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종교는 철학보다 대중적이고 역간(易簡)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고행적이고 엘리트적인 분위기가 압도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의 이념에서 상구보리만을 의식하고 하화중생은 미약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불교가 기독교의 전파력에 비해 대중 전파, 포교력에서 밀리는 원인입니다. 대중은 어려운 고행적 수행불교에서 쉬운 기복불교로 전환하는 현실입니다.

> 철학은 난해하고 어렵지만
> 종교는 쉽고 편리해야
> 한국불교는 고행·엘리트 불교
> 보다 쉽게 대중에 다가가야

한국불교의 대중화 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살도 운동으로 자리이타 운동이 필요합니다. 부처를 너무 아득한 지존의 거룩한 존재로 표상하기보다 자리 이타적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주체화해야 합니다.

불교는 유교나 기독교처럼 늘 옳음을 선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 ·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를 자리 · 이타적 마음의 화신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불교는 마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자연적으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부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것과 다르지 않음입니다.

선은 옳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고로 선을 어렵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인간적이고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즐겁게 하고 인생의 이익을 보여주신 대스승이자 화신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이익을 위해 힘쓰면 부처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쓰면 중생이 됩니다. 인간은 부처와 중생의 얼굴을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금강경의 사상(四相)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소지 여부에 따라 부처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생과 부처의 갈림길은 사상을 소유하느냐 비소유하느냐는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사상의 무소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보살은 사상을 소유하지 않기보다 사상을 소유하는 마음에서 그 존재를 비소유로 전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즉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소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존재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론적 사고방식은 아상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존재론적 사고방식은 연기론적 사고방식으로 공통체적 그물망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연기론적 사고방식인 공동체적 그물망의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존재하고 이것은 저것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결국 우주일체 만물은 더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존재론적 사고방식은 공동체와 더불어 사고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생활, 일상의 삶에 있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까요. 더불어 공동체 형성에 도움되는 일하기 사고방식도 필요합니다.

보통 중생들은 유아론적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기 · 배타적인 일하기입니다. 이기 · 배타적 일하기는 나 중심의 유위적 사고방식(소유를 위한 사고방식)입니다. 반면, 부처님의 일하기는 연기론적 일하기로 자리이타적 일하기입니다. 자리이타적 일하기는 그냥 좋아서 하는 자연적 무위적 사고방식입니다.

좋은 일 하기, 보살심을 실천하기란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리이타의 공심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윤리교육은 사회예의범절을 교육시키는 수준에서 충분합니다. 윤리교육이 심층적 마음의 변화를 유발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것보다 예술교육이 사람의 심성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해 심성교육에 나서야 합니다.

인간이 부처인 동시에 중생인 이중적 존재양식을 갖고 있듯이 업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업은 물리적 우주의 힘처럼 마음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하죠. 결국 업은 그 사람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에 내가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단점은 동시에 그 사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업은 나를 그러한 일종의 존재양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특성, 나의 재주,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이 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업은 다각도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의 조기교육을 돌아봅시다. 요즘 아이들을 해외에 조기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조기유학을 보내면 남편과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로인해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이들이 조기유학을 간다면 조기유학의 장점이 발현될까요. 모든 것은 상관관계와 구조 속에서 연기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 어떤 이의 단점은 장점되기도
> 업은 장·단점 구분해 발현된 것
> 나와 남 모두 즐겁게 하고
> 인생의 이익 보여주는 이가 부처

그렇기 때문에 보살도의 실현은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한낱 미물까지도 우리는 모두 연결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낱 미물,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위한 삶을 실천한 위인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원효 대사입니다. 원효 대사의 하심은 요석 공주와의 통혼에서 잘 드러납니다. 고승은 의식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라는 하심의 생활화를 이룬 것입니다. 빈 허공처럼 무애함으로 '공심즉공심(公心卽空心卽共心)' 이라는 보살정신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불국토의 정신은 이상주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낭만주의적 공상과 몽상도 아닙니다. 현실주의도 아닙니다. 불국토 사상은 원효 스님의 경우에서 보인 불심발현주의인 것입니다.

보살도는 도덕의지의 무장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다른 존재를 위하는 자연적 마음의 발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기법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서양에서 왜 기독교가 쇠락하고 불교가 성장해 나갈까요. 서양은 과학에서 비롯된 제조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런 사상의 근원은 〈구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이 창세기를 제조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인간만이 물건을 제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인류문명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능동과 수동의 관계, 선과 악이 확실한 관계의 기독교는 조화보다는 수직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적이고 배타적 독선적 사상으로 종교전쟁을 일으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불교는 다원성을 인정하며 이치에 맞게 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서양에서 새롭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불교를 좀 더 쉽고 대중적이게 되게 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